

개혁기 중국의 국가와 노동자 교육: 1980년대 「사상정치공작 연구회」의 설립과 활동을 중심으로¹⁾

박철현²⁾

목차

- I. 서론
- II. 건국 이후 중국의 노동자 교육
- III. 개혁기 「사상정치공작 연구회」와 노동자 교육
- IV. 다롄기차차량창의 사상정치공작
- V. 결론

1) 이 글은 「개혁기 중국의 국가와 노동자 교육: 1980년대 사상정치공작 연구회의 설립과 활동을 중심으로」, 『도시연구: 역사 사회 문화』, 제23호, 2020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2) 국민대학교 중국인문사회연구소 HK연구교수.

I. 서론

본 연구는 개혁기 중국에서 ‘노동자 교육’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서 시작되었다. 주지하다시피 중국은 1949년 10월 건국 이후 계획경제와 계급투쟁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사회주의 건설의 길을 걸어왔으나, 1976년 마오쩌둥(毛澤東) 사망 이후 개혁기 1980년대 들어서 점차 계획경제 및 계급투쟁과 결별하고 포스트사회주의로 나아간다. 개혁기 국가는 산업구조 조정(產業重構)을 통해서 기존 국유기업의 90%를 사유화(私有化)시키고, 자신의 정치적 기반일 뿐 아니라 경제적 생산의 주체인 노동자들의 지위를 기존의 “공장의 주인(工廠的主人翁)”에서 노동계약(勞動合同)에 기초한 임금노동자로 전환하는 소유권 개혁을 진행한다. 문제는 이렇게 1980년대부터 시작된 국유기업 개혁은 산업구조 조정과 소유권 개혁이라는 제도적 변화만이 아니라, 개혁기 현실에 적합하도록 노동자의 ‘의식’을 변화시키는 작업이 병행되어야만 비로소 완성될 수 있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기존 사회주의 시기에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는 타도와 극복의 대상이며 노동자가 주인인 사회주의야말로 중국이 건설해나가야 하는 지상명제라는 노동자 교육이 이뤄졌는데, 이제 개혁기 들어서 이러한 주장과는 상반되는 방향으로 체제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제도만이 아니라 노동자의 ‘의식’을 변화시켜야 비로소 노동자가 혼란없이 일사불란하게 시장경제 건설에 동원될 수 있다고 국가는 판단했기 때문이다.³⁾ 다시 말해서 국가는 개혁기 정치적 사회경제적 지형에 적합한 ‘노동자 계급’의 창출을 위해서는 노동자와 관련된 제도적 물질적 변화만이 아니라 ‘의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인식한 것이다.

본 연구는 개혁기에 막 들어선 1980년대 기존 사회주의와 결별하면서 중국의 국가가 기업의 노동자 ‘의식’을 바꾸기 위해서 진행했던 ‘노동자 교육’의 문제를 「중국 직공사상정치공작 연구회(中國職工思想政治工作研究會 Chinese Society of Ideological and Political Work 이하, 사상정치공작 연구회)」의 형성과 활동을 통해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⁴⁾ 기존 사회주의 시기 국가가 단위(單位) 내부에 설치된 당 조직을 통해서 노동자 교육을 시행하던 방식은 개혁기 들어서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었다. 과거 사회주의 시기 도시 노동자에게 있어서 단위 밖의 삶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단위는 노동자의 사회경제적 삶에 있어서 절대적인 존재였고, 국가는 단위를 통해서 사회경제적 자원(주택, 의료, 교육, 문화, 임금 등)을 노동자에게 제공하면서 동시에 단위 내부의 당 조직을 통해서 노동자에 대한 정치적 조직과 동원을 실현했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주의 시기와 비교되는 개혁기의 차별성은, 시장경제 확산과 국유기업 개혁으로 단위체제가 점차 약화 해체되면서 단위의 사회경제적 자원 제공 기능은 쇠퇴하는 대신, 노동자는 새로이 탄생한 ‘시장’에서 화폐를 매개로 이러한 자원을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개혁기 국가는 기존에 단위 내부의 각종 기제(당 조직, 노조, 학교 등)를 통한 것과는 다른 방식을 통해서, 포스트사회주의로의 체제전환에 적합하도록 노동자 ‘의식’을 변화시키는 노동자 교육을 추진한다. 1980년대 초반 「사상정치공작 연구회」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배경으로 해서 등장했다. 이 연구회는 개혁기 노동자 교육을 위한 연구단체로서 국가 주도로 형성되었고, 그 장정(章程), 주요 인물, 조직구성, 활동 등의 측면에서도 포스트사회주의 시장경제 시기에 적합한 노동자 교육을 위한 국가의 의지가 매우 강하게 드러

3) 물론 이것이 노동자가 국가가 ‘원하는 대로’ 의식화되고 동원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실제로 국유기업 개혁과정에서 다양한 형식의 노동자 저항이 무수히 발생했다는 것은 공인된 사실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노동자 저항의 ‘부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개혁기 노동자 교육에 관한 국가의 기획에 초점을 맞추어 그러한 기획이 사상정치공작 연구회를 통해서 어떻게 실현되었는지를 분석하여 개혁기 초기인 1980년대 국가 ‘노동자 교육’의 이념적 기초를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4) 1983년 설립 당시 「중국 직공사상정치공작 연구회(中國職工思想政治工作研究會)」란 명칭이었으나, 2003년 「중국 사상정치공작 연구회」로 개명한다. 설립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III장을 참고.

난다.

중국 국유기업 개혁에 대한 선행연구는 주로 소유권(產權), 정기분리(政企分離 정치와 기업의 분리), 국유자산(國有資產) 관리체제 개혁, 자본구조 재조정(資產重組), 기업지배구조(公司治理結構) 등에 관한 것들이다.⁵⁾ 기존 사회주의 체제에서 포스트사회주의로 이행과정에서 국유기업의 시장경제 기업으로의 전환과 관련하여 다양한 관점에서의 제도적 분석에 연구가 집중되어있는 것이다. 하지만 앞서 밝혔듯이 사회주의 기업에서 시장경제 기업으로 전환시키는 것은 실제 생산의 주체인 노동자의 의식을 어떻게 시장경제에 적합하도록 변화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와 불가분의 관계이다. 즉 과거 “공장의 주인은 노동자”에서 노동계약에 기초한 임금노동자 지위로의 제도적 변화만이 아니라, 효율과 이윤동기를 시장경제 기업의 가장 중요한 원리로 수용하도록 노동자의 의식을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노동자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사상정치공작 연구회」는 개혁기 기존과 달라진 정치적 사회경제적 지형에서 이러한 노동자 교육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국가가 설립한 연구기관이다. 국가는 「사상정치공작 연구회」를 통해서 개혁기 시장경제에 적합한 기업, 공장, 노동조합 등에서의 노동자 교육을 위한 연구를 진행한다. 본 연구는 「사상정치공작 연구회」의 설립과 활동에 초점을 맞춰, 개혁기 초기인 1980년대 중국의 국가가 기획했던 ‘노동자 교육’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서론에 이어서 II장에서는 건국 이후 중국의 노동자 교육을 사상정치교육(思想政治教育)의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기존 제국주의, 봉건주의, 자본주의의 극복을 목표로 한 건국 초기와 사회주의 건설 시기 국가가 기획했던 노동자 교육의 실재를 사상정치교육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개혁기 사상정치공작의 전사(前史)를 밝힌다. III장에서는 개혁기 국유기업 개혁을 살펴본 후, 개혁기 노동자 교육을 위해 국가가 설립한 「사상정치공작 연구회」를 장정, 주요 인물, 조직구성, 학술지 『사상정치공작연구(思想政治工作研究)』의 내용 등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IV장에서는 기존 만주국(滿洲國)의 기관차 생산공장이었다가 건국 이후 사회주의적 개조를 통해서 국유기업으로 전환되었고 개혁기 들어서 국유기업 개혁을 통해서 주식제 국유기업으로 다시 전환된 중국 동북지역의 대표적인 대형 국유기업 ‘다롄 기차차량창(大連機車車輛廠)’의 사례를 통해서, 개혁기 국가가 「사상정치공작 연구회」를 통해서 기획한 노동자 교육이 실제 기업층위에서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분석한다. V장 결론에서는 본 연구의 발견을 정리하고 개혁기 노동자 교육에 대한 보다 심화된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II. 건국 이후 중국의 노동자 교육

본 장에서는 건국 이후 국가가 기획한 노동자 교육의 실재를 ‘사상정치교육’의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본다.⁶⁾ 중국공산당은 1949년 10월 새로운 국가를 건국했지만, 그들이 실제로 맞

5) 국유기업 개혁에 관한 중국 측 선행연구는 매우 많은데, 그 중 기존 연구동향을 분석한 대표적인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賈婧, 「國企改革的文獻綜述」, 『管理觀察』 31期, 2017; 張婧 吳麒麟, 「國企改革觀點綜述」, 『技術與市場』 8期, 2012; 曾衛平, 「關於國企改革研究的綜述」, 『商』 21期, 2012; 邢森, 「進一步深化國企改革理論觀點綜述」, 『中國工商管理研究』 3期, 2005; 劉萍, 「國企改革分論壇綜述」, 『中國改革』 11期, 2003; 唐杰 劉魯魚 劉占軍 楊修友, 「“經濟轉軌與國企改革”國際研討會綜述」, 『經濟學動態』 1期, 1998; 楊兵, 「國企改革理論觀點綜述」, 『價格與市場』 7期, 1998.

6) ‘사상정치공작’이란 표현은 건국 이전에도 사용되었으나, ‘사상정치교육’이란 표현은 건국 이후인 1950년 2월 중화전국학생연합회(中華全國學生聯合會) 회의에서 최초로 등장했다. 이후 1951년 5월 류샤오치(劉少奇)가 제1차 전국선전공작회의(全國宣傳工作會議)에서 사상정치공작이란 표현을 사용한다. 두 표현은 이후 혼용되었으나, 개념적으로 볼 때 사상정치교육이 ‘교육’에 강조점을 두어 주로 각

닥트린 현실은 과거 봉건제의 강고한 유산, 제국주의 침략으로 피해를 입은 사회와 경제, 정치적으로 분열된 국토였다. 거대한 국가의 안정적 통치라는 과제에 직면했지만 사실상 도시, 공장, 기업, 행정에 관한 제대로 된 경험을 보유하지 못한 중국공산당은 건국 직전인 1949년 3월 ‘시바이포 회의(西柏坡會議)’에서 과거 혁명 기간 내내 유지했던 농촌중심 노선을 도시중심 노선으로 전환하는 결정을 내리고, 건국 이후에는 도시 노동자 계급을 자신의 정치적 기반으로 창출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한다. 노동자 계급의 창출은 단위체제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경제적 자원의 배분과 정치적 동원 및 조직의 실현을 통해서 그 제도적인 측면이 갖춰지지만, 동시에 기존 자본주의적 생산관계 속에 예속되었던 노동자를 공산당에 충성하는 “공장의 주인”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제도만이 아니라 의식의 변화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사상정치교육이 매우 시급한 과제였다.

1949~56년 시기 직공사상정치교육의 내용은 주로 계급관계, 노동관념, 시사정치, 생산정책과 관련된 것들이 주를 이뤘다. 계급관계는 건국 이전 제국주의나 국민당과 협력한 매국노(漢奸)에 대한 적대감이나 혁명의 지도계급으로서의 노동자라는 의식을 교육하는 것이었다. 또한 노동관념은 노동자 내부의 단결, 생산관념, 노동기율을 확보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아울러 시사정치와 생산정책에 있어서는 국내외 정세 및 경제, 공산당의 노선, “공장의 주인은 노동자” 의식을 교육하는 것이 중요했다. 따라서 사상정치교육은 주로 ‘정권안정’, ‘국가보위’, ‘생산회복’에 강조점을 두고 있었다. 1950년 10월 중국공산당은 「전국적인 시사선전에 관한 중공중앙의 지시(中共中央關於在全國進行時事宣傳的指示)」를 선포하여 “미제국주의의 북한 침략”에 반대하고 북한을 지지하는 애국주의 반제국주의 관련된 사상정치교육을 전국적인 범위에서 시행했다.⁷⁾ 또한 삼반운동(三反運動)과 오반운동(五反運動) 과정에서 독직(瀆職), 낭비, 관료주의, 부패 등의 이유로 정부기구와 사(私)기업 내부의 관료와 자본가에 대한 투쟁을 전개하면서, 이와 관련된 반(反)관료주의 반(反)부패 관련 사상정치교육을 시행한다. 당시 중국은 광대한 지역이 여전히 중국공산당의 미점령 상태였으며, 타이완으로 옮겨간 국민당과의 전쟁은 계속되고 있었고, 최대의 경제도시 상하이는 국민당군 폭격기의 공습을 받고 있었다. 중국은 1950년에는 한국전쟁에 참전하여 미국이 이끄는 국제연합(UN)군과 싸웠는데, 국내적으로는 국민당 잔존세력, 소수민족집단, 종교결사체, 지주세력 등이 사적인 무장력을 갖추고 공산당의 통치에 반기를 들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것이다.⁸⁾

중요한 것은 이런 국내외적 적대세력에 맞서서 오랜 전쟁과 분열로 황폐해진 경제를 복구하는 것이 지상과제였던 공산당으로서는 “계급의 적”에 대한 투쟁이 필요하지만 그러한 투쟁이 지나쳐서 ‘안정적인 생산’을 저해할 정도가 되면 안 된다고 판단하고, 공장 내부의 계급투쟁을 적절한 수준으로 관리하고 생산에 강조점을 두는 사상정치교육을 진행했다는 점이다.⁹⁾

급 학교에서의 사상정치 관련 교육을 가리킨다면 사상정치공작은 이러한 학교에서의 교육은 물론, 그 외 기업, 군대, 사구(社區 지역 공동체) 등 다양한 공간에서의 당 건설, 선전, 조직, 유지 등에 관련된 사회적 ‘활동(工作)’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사상정치공작은 사상정치교육보다 광의의 의미를 가지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사회주의 시기 사상정치교육은 사실상 당시 사상정치공작과 혼용되는 개념이었다. 또한 개혁기 도시에는 사회주의 시기와 달리 단위만이 아니라 매우 다양한 ‘사회집단’이 등장하였고,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노동자 교육이 단위 내부에서만이 아니라 개혁기 등장한 이러한 다양한 사회집단에서도 진행되는 것이 필요하므로, 사상정치교육이 아니라 사상정치공작을 연구회를 지칭하는 보다 적절한 표현으로 채택하여 개혁기 변화된 현실에 대응하려고 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을 참고: 馮剛 曾永平, 「“思想政治工作”與“思想政治教育”概念辨析」, 『思想政治教育研究』 1期, 2018.

7) <http://www.china.com.cn/ch-America/Wenxian/zhong.htm> (검색일: 2020년 2월10일).

8) 중국 건국 초기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은 다음을 참고: 로드리크 맥파커 엮음, 김재관 정해용 옮김, 『중국 현대정치사』, 푸른길, 2012, 20-67쪽.

1953~57년 시기는 ‘제1차 5년 계획(第一個五年計劃)’에 의해 산업의 사회주의적 개조가 본격화됨에 따라서 자본주의 비판과 사회주의 지향을 내용으로 하는 노동자 사상정치교육이 확산된다.¹⁰⁾

1956~66년의 10년은 반우파투쟁(反右派鬭爭), 대약진(大躍進), 사회주의 교육운동의 시기로서 노동자만이 아니 사회 구성원 모두에 대한 사상정치교육이 전면적으로 시작되었다. 1960년 3월 마오쩌둥은 「공업 전선에서의 기술혁신과 기술혁명 운동의 전개 상황에 대한 안산시위원회 보고서(鞍山市委關於工業戰線上的技術革新和技術革命運動開展情況的報告)」를 통해서 ‘양참일개삼결합(兩參一個三結合)’을 지시한다. ‘양참일개삼결합’은 간부는 노동에 참가하며 노동자는 관리에 참가하고(兩參), 불합리한 규정을 개조하며(一個), 노동자 간부 기술자 삼자가 결합하는(三結合) 것을 가리킨다.¹¹⁾ 이 보고는 국유기업 내부의 관료주의 타파와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 기업 경영과 관리에 대한 노동자 적극적 참여를 요구하는 것으로, 사상정치교육에 있어서는 “공장의 주인은 노동자”가 특히 강조되었다. 또한 1960년 다칭(大慶) 유전 개발을 계기로 국가적 범위의 중대한 일을 위해서 사적인 이해관계를 버리고 분투하는 ‘모범 노동자(勞動模範)’가 ‘철인정신(鐵人精神)’이란 상징으로 개념화된다.¹²⁾ 아울러 이러한 모범노동자를 따라 배우기 위한 경쟁이 강조되고 생산량 증대, 선진기술 개발, 품질개선 등을 둘러싼 노동경쟁 캠페인이 전국적인 범위의 모든 생산부문으로 확대되었다.¹³⁾ 이에 따라 이러한 모범 노동자가 사상정치교육의 핵심내용이 된다.

1966~1976년 시기는 문화대혁명 시기로 노동자 사상정치교육의 내용은 ‘계급투쟁’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1967년 10월 중공중앙과 중앙문혁소조(中央文革小組)는 「혁명위원회가 이미 성립된 단위에서 당의 조직생활 회복에 관한 지시(關於已經成立了革命委員會的單位恢復黨的組織生活的批示)」를 발표하여 ‘계급투쟁’을 중심으로 당을 건설하고 ‘주자파(走資派)’에 대한 비판을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¹⁴⁾ 이로써, 이전 시기 노동자 사상정치교육이 계급투쟁만이 아니라 기업 내부의 ‘생산과 관리’에도 일정한 강조점이 주어진 것과 달리, 문화대혁명 시기 사상정치교육은 철저히 계급투쟁을 통한 주자파 비판에 강조점이 주어진다. 그 결과 노동자는 작업현장을 떠나서 주자파를 비판하는 정치활동에 동원되어 기업은 조업정지 생산량감소 품질저하 등 생산과 경영에서 심각한 타격을 받는다.

이러한 사회주의 시기 노동자 사상정치교육은 주로 다음과 같은 형식을 통해서 이뤄졌다.¹⁵⁾ 첫째 ‘일과 후 보습반(業餘補習班)’으로, 주로 중대형 기업의 야간학교(夜校), 식자반(識字班), 신문읽기반(讀報班), 문화클럽(文化俱樂部), 정치반(政治班) 등이다. 주목할 것은 건국

9) 실제로 공산당은 하얼빈 “해방”하고 통치할 때, 기존 만주국과 일본인 소유 기업 및 공장에 대한 ‘청산투쟁(清算鬭爭)’과 자본가에게 경영 수익배분을 요구하는 ‘분홍투쟁(分紅鬭爭)’이 과열되어 안정적인 생산을 해치는 것을 우려하여, 상공업을 보호하는 정책을 취했다. 관련 내용은 다음 연구를 참고: 이원준, 「중국공산당의 도시점관 정책과 하얼빈 통치방침의 변화」, 『도시연구』 13, 2015.

10) 이하 사회주의 시기 노동자 사상정치교육의 연대기적 분석은 다음을 참고: 曾志偉, 「國有企業思想政治工作創新研究」(中共中央黨校博士學位論文), 2010, pp. 33-39.

11) 이 제도는 랴오닝성(遼寧省) 안산제철소(鞍山鋼鐵)의 기업관리 경험에서 비롯되었다고 해서 ‘안강헌법(鞍鋼憲法)’이라고 불린다.

12) 다칭 유전 개발에서 철인정신의 상징으로 부각된 인물은 왕진희(王進喜)이다.

13) 이 시기 선양(瀋陽)의 노동경쟁 캠페인에 관한 연구는 다음을 참고: 한지현, 「새로운 중국의 새로운 노동자 만들기: 선양시 노동경쟁 캠페인과 공인촌」, 박철현 편 『도시로 읽는 현대중국 1』, 역사비평사, 2017.

14) 이후 이 지시는 주로 ‘오십자 건당 방침(五十字建黨方針)’으로 불리고, 이후 1969년 중국공산당 제9차 전국대표대회를 통해서 당장에 삽입된다. <https://www.pmume.com/o/n5arb.shtml> (검색일: 2020년 2월12일).

15) 다음을 참고: 趙秋靜, 『東北解放區思想政治教育研究』,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13, pp. 159-164.

초기 중국은 문맹률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식자반과 신문읽기반 같이 글자를 익히고 신문을 읽게 하는 보습반이 사상정치교육의 매우 중요한 형식이었다는 점이다. 둘째, 정규 노동자학교(工人學校)로, 일정기간 생산에 종사한 노동자가 생산현장에서 벗어나서 노동자 정치학교 등에서 학습하는 형식이었다. 이 형식의 사상정치교육의 효과는 높았지만, 생산현장을 일정기간 떠나서 학습에 전념할 수 있는 노동자는 실제로는 고급기술자, 간부, 모범 노동자 등으로 제한되어있어서 전체 노동자 사상정치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별로 크지 않았다. 셋째 노조 자체교육으로, 노조가 노동자 사상정치교육의 주체로 해당 기업 및 공장 소속 노동자를 대상으로 노조가 주도하는 내용과 방법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다. 이것은 사실상 단위(=기업) 내부의 당 조직이 노조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노동자 사상정치교육을 주도하는 것으로, 각 시기 상층 당 조직에서 제기된 정치적 경제적 요구에 부합되는 내용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노조 자체 교육은 사회주의 시기 각종 정치운동에 의해 크게 영향 받았다. 넷째, 앞서 언급한 생산경쟁 캠페인으로 ‘모범 노동자’의 선전과 그에 대한 학습이 곧 사상정치교육의 내용이었다. ‘모범 노동자’는 시기별 분야별로 창출되어서 노동자 교육의 중요한 내용이 되었다.

III. 개혁기 「사상정치공작 연구회」와 노동자 교육

II장에서 건국 이후 공산당의 정치적 기반이 되는 노동자를 창출하기 위한 사상정치교육의 전사를 살펴본 것을 기초로 해서, 본 장에서는 개혁기 들어서 다시 사회주의에서 포스트사회주의로 체제전환하는 과정에서 공산당이 노동자의 의식변화를 위해서 설립한 「사상정치공작 연구회」와 노동자 교육의 문제를 분석한다.

1. 1980년대 노동자 교육의 문제와 「사상정치공작 연구회」 설립의 배경

1983년 1월 중국공산당 선전부(宣傳部)는 건국 이후 최초의 「전국 직공 사상정치공작 회의(全國職工思想政治工作會議)」, 이하 회의를 개최하고, 7월에는 「국영기업 직공 사상정치공작 강요(國營企業職工思想政治工作綱要)」, 이하 강요를 발표하여 개혁기 “새로운 역사 조건”에서 기업 직공의 사상정치공작의 방침, 내용, 방법과 사상정치공작 간부대오의 건설 및 공산당의 지도적 역할을 강조한다. 「회의」에서는 과거 대약진과 문화대혁명의 사상정치공작에 있어서 ‘당의 지도’ 원칙이 관철되지 못해서 나타난 폐단을 지적하면서, ‘당의 지도’는 새로운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社會主義現代化建設)” 시기 사상정치공작에서 철저히 관철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강조한다.¹⁶⁾

중국 개혁기 사상정치공작과 관련해서 최초로 나온 중요 문건인 「강요」의 핵심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주의 건설의 주요 세력은 노동자 계급이며, 신시대 사회주의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인데, 과거 ‘계급투쟁’을 중심으로 하는 사상정치공작의 ‘좌경 오류’는 반드시 수정되어야 하며, 사상정치공작에 있어서 당의 지도 원칙이 철저히 지켜야 한다. 둘째, 신시대 사상정치공작은, 중국근대사, 중국혁명사, 중국공산당 당사(黨史), 과학사회주의, 중국노동자계급의 역사, 맑스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사회주의 민주와 사회주의 법제, 공산주의 도덕, 맑스주의 심미관, 세계 속의 중화인민공화국, 당대 과학기술 성취 등의 교육으로 구성되어야 한다.¹⁷⁾

16) 陳進玉, 『企業職工思想政治教育概要』, 企業管理出版社, 1984, pp. 20-23.

17) http://www.ce.cn/xwzx/gnsz/szyw/200706/07/t20070607_11633643.shtml (검색일: 2020년 2월11일)

중국의 당-국가는 기존 마오쩌둥 시기 문화대혁명의 ‘계급투쟁’ 일변도로 진행된 사상정치 공작이 현실에서 노동자에 의한 관료기구 파괴, 생산현장에서의 노동자 이탈, 사회적 분열과 대립의 심화를 초래한 것에 주목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산당이 사상정치 공작의 주도권을 장악하여 관료기구의 정상적 작동, 생산의 복구, 사회적 통합을 통해 새로운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로 나아가야 한다고 보았던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1980년대 국가는 생산의 주체인 노동자가 시장경제 건설에 진력할 수 있도록 사상정치공작을 진행하고자 했다.¹⁸⁾

개혁기 초기인 1980년대 산업, 노동 분야에서 중요한 의제로 부상한 것은 바로 ‘공장장 책임제(廠長負責制)’였다. 공장장 책임제는 기업의 효율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공장장이 기업의 생산과 경영관리를 책임지는 제도로써, 1984년 5월 발표된 「국영공업기업 지도체제 개혁 시점 공작에 관한 중앙판공청 국무원판공청의 통지(中央辦公廳國務院辦公廳關於認真搞好國營工業企業領導體制改革試點工作的通知)」, 이하 통지」를 통해서 국가가 공장장 책임제의 시점(試點)을 설치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본격화되었다. 즉 공장장 책임제의 목적은 당 조직이나 관련 정부부문의 간섭을 최소화하여, 기업의 생산과 경영관리의 효율을 증대시켜서 시장경제 건설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제도의 도입으로 기존의 ‘계급투쟁’과는 정반대되는 효율과 이윤동기가 기업과 공장을 운영 관리하는 핵심적인 원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생산의 주체인 노동자들에게 효율과 이윤동기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교육을 전개하면서 동시에 이러한 교육의 주체로서의 국가의 절대적 지위를 수립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통지」에서는 공장장 책임제의 전면적 도입을 맞아 공장장과 부(副)공장장(일반적으로 당위원회 서기)에게 사상정치공작의 지도부로서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었다.¹⁹⁾

「사상정치공작 연구회」는 사회주의 시기와 달리 ‘계급투쟁’을 통한 사회주의 건설이 아니라 ‘효율과 이윤동기’를 통한 ‘시장경제’ 건설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배경으로 해서 등장한 것이다.

2. 「사상정치공작 연구회」의 설립, 장정, 주요 인물, 조직

「사상정치공작 연구회」는 1983년 1월 18일 베이징(北京)에서 설립되었다. 「사상정치공작 연구회」는 ‘비영리성 사단법인’이며, 설립시 이사회를 통해 「중국 직공사상정치공작 연구회 장정(中國職工思想政治工作研究會章程)」, 이하 장정」을 통과시켰다. 중공중앙 선전부(宣傳部), 중공중앙 서기처(書記處) 연구실, 국가경제무역위원회, 중화전국총공회(中華全國總工會)가 공동으로 발기하여 「사상정치공작 연구회」를 설립했다.

「장정」은 연구회와 국가의 관계, 노동자 교육에 있어서 연구회의 역할, 조직 등의 내용에 대해서 총칙, 주요임무, 주요활동, 회원, 조직기구, 경비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있다. 총칙에서 명시적으로 “중국공산당의 지도를 받아서 새로운 시기 직공사상정치공작의 이론연구를 하는 연구단체”라고 밝히고 있다. 주요임무와 활동에서 「사상정치공작 연구회」는 공산당의 노선, 방침, 정책을 관철시키되, 특히 ‘경제건설’과 ‘경제체제 개혁’을 위해서 사상정치공작 연구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사상정치공작 연구회」가 포스트사회주의로의 체제전환 과정에서 노동자 의식 변화를 위한 연구를 수행한다는, 국가기구의 부속단체라는 점이 선명히 나타난다.

18) 이후 시장경제 건설은 1992년부터 ‘사회주의 시장경제 건설’로 정식화되면서 공식 국정목표가 된다.

19) 1989년 3월31일-4월3일 난징(南京)에서 개최된 「사상정치공작 연구회」 제5회 연회(年會)에서 이뤄진 공장장 책임제를 둘러싼 논의는 다음을 참고: 趙新源, 「在探索中運轉 在運轉中完善: 中國職工思想政治工作研究會第五屆年會側記」, 『思想政治工作研究』 5期, 1989.

아울러 학술활동을 위한 학술지 『사상정치공작연구』, 『직공사상정치공작 브리핑(職工思想政治工作簡訊)』을 발간한다. 조직구성에 있어서, 1급 행정구(성, 자치구, 직할시)와 중앙정부 각 부문, 대도시, 사회과학 관련 연구단체, 당교(黨校)와 대학, 주요 기업(骨幹企業) 등의 사상정치공작 연구단체를 회원으로 한다. 조직기구는 명예회장과 고문은 중앙정부 관련부문의 고위 인물이 담당하고, 회장, 부회장, 비서장, 부비서장을 두고, 이사회를 설치한다. 연구회 운영과 관련된 경비는 정부가 지출하고 단체회원 및 관련 부문에서도 보조한다.

설립 이후 「사상정치공작 연구회」는 1984년 12월 5일 제1차 연회(年會) 공작보고를 제출한다. 이 보고의 제목은 ‘도시 경제체제 개혁의 새로운 형세에 적응하여, 직공 사상정치공작 연구의 새로운 국면을 열자(適應城市經濟體制改革的新形勢 開創職工思想政治工作研究的新局面)’로, 설립 이후 약 2년간의 연구의 주요 업무와 그에 대한 평가, 미래의 임무 등으로 이뤄져 있다.

이 보고에서 특히 주목할 것은 두 가지이다. 첫째, 「사상정치공작 연구회」는 설립 이후 다양한 연구과제를 수행하여, 『기업 사상정치공작 수첩(企業思想政治工作手冊)』, 『정치사상공작 간부 필수(政工幹部必備)』, 『사상정치공작에 관한 마스주의 논술 전집(馬克思主義關於思想政治工作的論述專輯)』, 『좋은 기업 당위원회 서기가 되는 법(怎樣做好企業黨委書記)』 등의 도서를 출간했다는 점이다.²⁰⁾ 이렇게 「사상정치공작 연구회」는 단지 이론적 조사연구에 집중하는 학술단체가 아니라 기업과 당정기관 현장의 사상정치공작에 긴요한 실질적 지침을 도서의 형태로 제공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현장의 사상정치공작 문제에 구체적으로 개입했다. 둘째, 1984년 10월 중국공산당 제12차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경제체제 개혁에 관한 중공중앙의 결정(中共中央關於經濟體制改革的決定)」을 통해서 향후 체제전환의 주요목표로 선언된, 합리적 가격체계 수립, 정기분리, 다양한 경제 책임제의 수립, 다양한 경제형식의 발전 등을 「사상정치공작 연구회」의 지도사상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사상정치공작 연구회」는 중공중앙의 결정한 이러한 체제전환의 구체적인 목표들을 사상정치공작의 내용으로 개념화하여 기업의 당위원회 선전부와 소속 ‘정공간부(政工幹部 정치사상공작 간부)’에게 전달하여 현장에서 노동자 교육의 가이드라인으로 사용하게 하는 역할을 한 것이다.

이후 「사상정치공작 연구회」는 1988년까지 8회의 ‘정보교류회(信息交流會)’와 1989년까지 5회의 연회를 개최하면서 해당 시기 제기된 직공 사상정치공작에 필요한 연구를 지속한다.²¹⁾

「사상정치공작 연구회」와 국가의 관계를 가장 명징하게 보여주는 인물은 그 설립을 주도하면서 고문을 역임한 덩리첸(鄧力群)이다. 「사상정치공작 연구회」 설립 당시 선전부 부장(部長)이었던 그는 이미 건국 이전부터 당교 교무비서장, 옌안(延安) ‘마스 레닌주의 학원’ 교무처 처장, 중공중앙 조사연구국 정치연구실 조장 등을 역임했고, 건국 이후에는 잡지 『홍기(紅旗)』 편집인을 지냈고 중공중앙의 주요 문건의 기초(起草) 작업에 참여했으며, 개혁기에는 사회과학원 부원장과 부(副)서기 등을 역임하면서, 1982년 『건국 이후 당의 약간의 역사문제에 관한 결의(關於建國以來黨的若干歷史問題的決議)』의 기초에도 참여했다. 이런 이력을 가진 덩리첸

20) 본래 ‘사상정치공작’의 문제는 1924년 중공중앙 선전부가 성립되면서 선전부가 줄곧 전담해온 분야였다. 선전부는 중국의 당(黨), 정(政), 군(軍) 등 국가기구와 도시의 단위와 농촌의 인민공사에 설치된 당 조직에 사상정치공작을 담당하는 정공간부를 두고 해당 조직의 이데올로기 문제를 담당해왔다. 이들 정공간부 중에서도 특히 기업에 설치된 정공간부를 ‘정공사(政工師)’라고 하는데, 당 총지부(黨總支部) 서기나 당 지부(黨支部) 서기 등의 일정한 자격을 갖춘 당원을 대상으로 시험을 거쳐서 선발했다.

21) 정보교류회는 주로 야금(冶金), 석탄(煤炭), 기계, 항공, 수전(水電), 방직 등 국무원 각종 부처의 사상정치공작 담당 부문이 참가하는 실무회의였다.

은 당내 사상, 이론, 선전을 책임지는 선전부 부장으로서 사상정치공작 관련 글들을 발표한다.

덩리췌은 「방직직공(紡織職工) 사상정치공작 연구회」가 정공간부를 위한 ‘일과 후 연수원(業與進修學院)’을 운영하는 것을 칭찬하면서, 사회주의 시기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처럼 개혁기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에 있어서도 사상정치공작이 방직직공 정공간부의 정치적 자질을 제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공간부의 노동자 교육은 맑스 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대 덩샤오핑의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를 건설하자(建設有中國特色的社會主義)」와 같은 교재에 기초해야 한다고 지적한다.²²⁾ 또한 그는 중앙중앙 서기처 서기와 선전부 부장의 명의로, 각급 당위원회는 사상정치공작을 중시하여 특히 각종 경로와 방식에 의해 전해지는, 사회주의를 저해하는 “정신오염”에 대해서 비판, 저지, 제거에 적극 나서야 하고, 애국주의와 공산주의 사상의 교육을 견지해야 한다고 경고한다.²³⁾ 덩리췌은 현직 선전부 부장이자 서기처 서기라는 국가기구의 핵심인물의 자격으로 개혁기 사상정치공작의 역할과 내용을 규정하고 노동자 교육의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한편 앞서 「장정」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상정치공작 연구회」는 부문별, 지역별 조직으로 구성되었다. 설립 2년이 못되는 1985년 10월말을 기준으로 보면, 전국적으로 119개 단체회원이 가입해있는데, 그 중 10개 대도시, 6개 중등도시, 45개 중대형 기업, 27개 성, 자치구, 직할시, 22개 중앙정부 부처와 총공사(總公司), 중국과학원(中國科學院)이 포함되어있다. 2010년 12월 23일 현재 전국 32개 성, 자치구, 직할시에 지역별 「사상정치공작연구회」가 설치되었다.²⁴⁾

부문별로 보면 2010년 12월23일 현재 거의 모든 중화학공업과 경공업 부문은 물론, ‘중앙기업’에도 「사상정치공작연구회」가 설치되어 노동자 교육을 위한 업무를 담당했다.²⁵⁾

부문별			
신장생산건설병단(新疆生產建設兵團)	재정부(財政部)	중국야금직공(中國冶金職工)	중국화학직공(中國化工職工)
중국건설직공(中國建設職工)	중국철로직공(中國鐵路職工)	중국경공업직공(中國輕工業職工)	중국방직직공(中國紡織職工)
중국교통직공(中國交通職工)	중국우전직공(中國郵電職工)	중국건설직공(中國建材職工)	중국의약직공(中國醫藥職工)
중국전자공업직공(中國電子工業職工)	중국수리직공(中國水利職工)	중국핵공업직공(中國核工業職工)	중국항공과기집단공사(中國航空科技集團)
중국위생(中國衛生)	전국인구통계계통직공(全國人口統計系統職工)	중국항공과기집단공사당건(中國航空科技集團公司黨建)	중국항공공업(中國航空工業)
중앙기업당건(中央企)	중국금융직공(中國金融職工)	중국선박공업직공(中	중국병기공업집단공

22) 이것은 1982년부터 덩샤오핑(鄧小平) 주장해온 개혁기 중국 사회주의 길에 관한 글과 발언을 ‘중공 중앙 문헌연구실(文獻研究室)’에서 편집한 책이다.

23) 鄧力群, 「思想政治工作的生命力在於創造」, 『思想政治工作研究』 5期, 1985.; 鄧力群, 「中央宣傳部部長鄧力群指出: 各級單位都要重視思想政治工作, 要清除來自各種渠道的精神污染」, 『思想政治工作研究』 5期, 1983.

24) 홍콩, 마카오, 타이완 제외. 2010년 12월 23일 현재 지역별 「사상정치공작연구회」 설치현황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 <http://siyanhui.wenming.cn/xb2015/hydw/1/> (검색일: 2020년 2월12일).

25) <http://siyanhui.wenming.cn/xb2015/hydw/2/> (검색일: 2020년 2월11일).

業黨建)	融職工)	國船舶工業職工)	사(中國兵器工業集團公司)
중국민항직공(中國民航職工)	중국임업직공(中國林業職工)	중국병기장비집단공사(中國兵器裝備集團公司)	중국석유당건(中國石油黨建)
전국식품약품감독관리계통(全國食品藥品監督管理系統)	중국과학원(中國科學院)	중국석유화학공집단공사(中國石油化工集團公司)	중국해양석유총공사(中國海洋石油總公司)
중국연초직공(中國煙草職工)	중국측회직공(中國測繪職工)	중국건축공정(中國建築工程)	전군장비보장기업(全軍裝備保障企業)
중국우정직공(中國郵政職工)	중국유통행업(中國流通行業)	중국황금직공(中國黃金職工)	중국공정물리연구원(中國工程物理研究院)
중국매탄직공(中國煤炭職工)	중국기계공업(中國機械工業)	중국농업과학원(中國農業科學院)	

표1) 부문별 「사상정치공작연구회」

여기서 주목할 것은 표1)에 나와있듯이 2010년은 물론, 과거 1985년에도 주요 총공사, 중대형 기업, 중앙기업이 모두 포함되어있다는 사실이다. 앞서 밝힌 것처럼 중앙기업은 국무원 산하 ‘국유자산 감독관리 위원회(國有資產監督管理委員會)’가 소유권을 행사하는 주로 에너지, 교통, 기계, 병기, 건설, 화학, 금속, 금융 등 분야의 대형기업들로서 국가는 이들 기업들을 통해서 국민경제를 관리한다. 따라서 이들 기업 소속 노동자 교육을 지휘하는 사상정치공작은 국가가 국민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앙기업들 소속 노동자를 자신이 원하는 내용으로 의식 교육을 진행하고 이를 통해 개혁기 사회와 경제를 관리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과 같이 「사상정치공작 연구회」는 설립 주체, 장정, 핵심 인물, 조직에 이르기까지 모두 국가기구와 불가분의 관계를 가졌고, 개혁기 초기 중국이 맞닥뜨린 새로운 정치적 경제적 지형 속에서 노동자 교육에 관한 이데올로기 생산기구로 역할 했다.

3. 『사상정치공작연구』의 주요 내용과 발행

「사상정치공작연구회」는 1983년 설립당시부터 학술지 『사상정치공작연구, 이하 연구』를 발행하고 있다. 중공중앙 선전부가 주관하는 이 학술지는 창간호 발간사(發刊詞)에서 학술지의 위상과 역할을 통해 국가와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있다.²⁶⁾

「연구」는 발간사에서 이 학술지의 창립 취지는 1982년 9월 중국공산당 제12차 전국대표대회 정신을 관철시키는 것이라고 명시한다. 구체적인 목표는 사상정치공작에서 ‘당의 지도’ 원칙을 계승하여 노동자 교육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여, 광범위한 정공간부의 정치적 소양과 업무 능력을 제고하는 것이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 것으로 분석된다. 첫째, 기존 마오쩌둥 시대 공산당이 사상정치공작을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반당집단(反黨集團)”이 사상정치공작을 지도하여 “좌경오류”를 범함으로써 국가와 인민에게 큰 피해를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즉 ‘사인방(四人幫)’이 계급투쟁 일변도의 사상정치공작을 주도한 결과, 노동자에 의한

26) 本刊編輯部, 「發刊詞」, 『思想政治工作研究』1期 1983. 「연구」는 1983년 3기를 발행했고, 1984년 6기와 연회 특집을 발행한 후, 1985년부터 매년 12기를 발행하고 있다.

관료기구 파괴, 생산현장에서의 노동자 이탈, 사회적 분열과 대립이라는 폐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개혁기에는 공산당이 사상정치공작을 통제하여 과거와 같은 폐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둘째, 이러한 ‘구악의 재연’을 방지하는 것과 함께, 앞서 언급한 1983년 7월의 「강요」에 따라 새로운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에서 기업 노동자들이 공산당이 원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게 만들기 위한 노동자 교육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학술정보를 제공할겠다는 것이다. 즉 기존 사회주의 시기 “공장의 주인”인 노동자를 포스트사회주의 시기 ‘임금노동자’로 전환하고, 공장장 책임제로 대표되는 1980년대 국유기업 개혁을 정당화해서, 효율과 이윤동기에 기초한 시장경제 건설을 위한 노동자 교육 이데올로기를 제공하는 역할을 자임한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다렌기차차량창의 사례를 통해서 「사상정치공작연구회」가 실제로 기층 기업과 공장에서 수행한 역할을 분석하도록 한다.

IV. 다렌기차차량창의 사상정치공작

1. 「사상정치공작연구회」의 설립과 조직

다렌기차차량창은 1899년 제정 러시아에 의해 설립된 ‘동청철도 기차 제조소(東清鐵道 機車製造所)’가 그 원형으로 러일전쟁 후 남만주철도주식회사(南滿洲鐵道株式會社)가 접수하고, 2차 대전 종전 이후 소련군의 일시적 관리를 거쳐, 1953년 ‘다렌기차차량공장(大連機車車輛工廠)’으로 개명한 후, 개혁기인 1994년 다시 다렌기차차량창으로 개명한다.

다렌기차차량창은 중국 최대의 내연기관차(內練機關車) 제작 공장으로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대형 국유기업이다. 다렌기차차량창은 다렌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이지만 중앙정부 철도부 직속 ‘중앙기업’으로 ‘행정급별(行政級別)’이 상당히 높은 대형 중공업 기업이고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개혁기 국가 입장에서 볼 때 이러한 중대형 중앙기업 소속 노동자 교육에 대한 사상정치공작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²⁷⁾

다렌기차차량창은 1985년 8월16일 「사상정치공작연구회」가 설립된다.²⁸⁾ 1986년 4월, 5월에는 연구회 장정, 지휘계통, 지도부, 연구조(研究組), 회지(會刊), 활동경비 등의 항목에 대한 논의를 거쳐서, 상무이사회(常務理事會) 구성원과 연구조 당 지부(黨支部) 서기, 연구조의 조장(組長) 등으로 이사회를 구성하였다. 아울러 회장, 부회장, 비서장, 부비서장으로 상무이사회를 구성하였다. 이사회 산하에 간부, 정공간부, 직공으로 구성된 11개 연구조를 설치하고, 각 작업장(車間)에도 연구조를 설치했다.

「사상정치공작연구회」의 회지는 『깨우침(啓迪)』으로, 매년 4기 발행했으며, ‘들어가는 말(開篇之聲)’, ‘중요 발언 요약(要言摘錄)’, ‘정치사상공작 논단(政工論壇)’, ‘이론학습(理論學習)’, ‘당 건설(黨的建設)’, ‘청년 공작(青年工作)’, ‘공작연구(工作研究)’, ‘경험교류(經驗交流)’, ‘정치사상공작 실제 사례(政工實例)’, ‘사상만담(思想漫談)’, ‘사지일엽(史志一頁)’, ‘깨우침의 말(啓迪絮語)’, ‘정치사상공작 브리핑(政工簡訊)’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1986년 「사상정치공작연구회」는 『기업관리 중 사상정치공작 역할에 대한 재인식(對企業管

27) 철도부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심의를 거쳐서 2013년 3월 10일 정기분리를 단행하여, ‘국가철로국’과 ‘중국철로총공사(中國鐵路總公司)’로 분리되었다. 이후 다렌기차차량창도 ‘중국중차집단 다렌기차차량유한공사(中國中車集團 大連機車車輛廠)’가 되었다. 다렌기차차량창에 대한 보다 자세한 연구는 다음을 참고: 박철현, 「사회주의 시기 중국 동북지역의 국가와 기업: 다렌기차차량창의 전형단위제를 중심으로」, 『만주연구』 20집, 2015.

28) 이하, 다렌기차차량창의 「사상정치공작연구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을 참고: 大連機車車輛工廠廠志編輯委員會 編, 『鐵道部大連機車車輛廠工廠志 1899-1987』, 1987, pp. 584-586.

理中思想政治工作作用的再認識』, 『사상정치공작이 새로운 필요에 적응하여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것에 관한 워크샵(思想政治工作適應新需要開創新路子的研討)』, 『맑스주의 이론 학습에 집중하자(要注重學習馬克思主義理論)』 등의 도서를 편찬하여, 상급단위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1987년에는 랴오닝성 「사상정치공작 연구회」에 단체회원으로 편입되었고, 공장 당위원회와 행정 부문 지도간부 회의에 「사상 통일, 행동 통일, 정식교육 심화, 기업개혁 심화(統一思想, 統一行動, 深入正面教育, 深化企業改革)」라는 연구자료도 제출한다.

2. 「사상정치공작연구회」의 주요 활동²⁹⁾

1985년 설립 이후 다롄기차차량창의 「사상정치공작연구회」의 활동은 다음과 같은 문제들에 집중되었다.

첫째, ‘공장장 책임제’의 문제다. 1986년 「전민소유제 공업기업 공장장 공작조례(全民所有制工業企業廠長工作條例)」, 「중국공산당 전민소유제 공업기업 기층조직 공작조례(中國共產黨全民所有制工業企業基層組織工作條例)」, 「전민소유제 공업기업 직공대표대회 조례(全民所有制工業企業職工代表大會條例)」의 국유기업 개혁 관련 3개 조례가 발표되었다. 다롄기차차량창 「사상정치공작연구회」는 이 조례들의 핵심내용인 ‘공장장 책임제’를 다롄기차차량창의 실제에 적용하여, 생산지휘와 경영관리에 있어서 공장장의 중심적 지위를 강조하는 문건인 「공장 지도층과 노동자가 시급히 학습하고 연구 토론할 필요가 있는 이론과제에 관한 건의(關於當前廠級領導層和全廠職工中急需進行學習和研討的理論課題的建議)」를 제출했다. 국가는 1984년 5월부터 제기한 ‘공장장 책임제’를 1987년경에는 전면적으로 확대하여, 기존 ‘당위원회 지도하의 공장장 책임제’와는 달리 공장장이 생산지휘와 경영관리의 최종적인 결정권을 가지게 하여, 공장장 책임제를 토대로 하는 국유기업 개혁을 당시 점차 부상하고 있었던 도시 중심의 경제체제 개혁의 핵심고리로 만들려고 한 것이다.

문제는 공장장 책임제는 공산당 내 일부 세력들에 의해서, 기업에 대한 당의 지도원칙을 위협하고 기업이 ‘자본주의적 영리 추구’에 매몰될 가능성을 증가시킨다는 이유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중공중앙 지도부 입장에서는 이러한 비판이 현장 기업과 노동자에게 미칠 “악영향”을 제거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사상정치공작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다롄기차차량창 「사상정치공작연구회」는 ‘공장장 책임제’의 전면적 확대를 위한 사상정치공작에 나선 것이다. 아울러 「사상정치공작연구회」는 1987년 10월 중국공산당 제13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정식화시킨 「사회주의 초급단계론(社會主義初級段階論)」을 선전하기 위해서 관련 자료를 제작하여 노동자 교육에 사용한다.

둘째, 1983년 10월 중국공산당 제12차 중앙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정당(整黨)에 관한 중공중앙의 결정(中共中央關於整黨的決定)」, 이하 결정이 통과된다. 「결정」은 “10년 동란(動亂)” 문화대혁명이 종결되었음에 불구하고 여전히 공산당 내부에 남아있는 작풍(作風)과 조직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공중앙이 ‘사상 통일(좌경 오류 반대, 중국공산당 제11차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결정 견지)’, ‘작풍 정돈(관료주의 반대, 인민에 대한 복무)’, ‘기술 강화(무정부주의 자유주의 반대, 민주집중제 견지)’, ‘조직 정돈(반당 해당 인물 제거)’을 요구한 것이다. 이에 부응하여, 1985년 8월-1986년 2월 기간 다롄기차차량창 「사상정치공작연구회」는 정당작업을 개시하여, 「지도부의 당풍 정돈에 관한 약간의 규정(領導班子端正黨風的若干規定)」, 「각급 지도간부의 당풍 장악 책임제(各級領導幹部抓黨風責任制)」, 「공장

29) 다음을 참고: 工廠簡史編委會編, 『大連機車車輛廠簡史 1899-1999』, 中國鐵道出版社, 1999, pp. 295-302.

당위원회 지도부의 사상작풍 건설 강화에 관한 규정(關於加強工廠黨委領導班子思想作風建設的規定)」 등의 공문을 작성 소속 당 지부에 발송하여 이에 기초한 노동자와 간부 교육을 요구한다. 1986년에는 사상정치공작의 대상을 50세 이하 간부들로 확대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중국혁명과 건설의 기본문제(中國革命與建設的基本問題)』, 『철학(哲學)』, 『정치경제학(政治經濟學)』, 『과학사회주의(科學社會主義)』 교재로 이론학습을 전개한다.

셋째, 1989년 6월의 ‘텐안먼(天安門) 사건’을 전후로 한 정치적 격동기에도 다롄기차차량창 「사상정치공작연구회」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동년 4월 16일 인민일보(人民日報) 사설 「동란에 반대하는 기치를 선명히 해야 한다(必須旗幟鮮明地反對動亂)」에 적극 호응하여, 다롄기차차량창 「사상정치공작연구회」는 「동란 제지 중 당 조직과 공산당원이 전투보루 역할과 선봉모범 역할을 발휘하는 것에 관한 통지(關於黨組織和共產黨員在制止動亂中發揮戰鬥堡壘作用和先鋒模範作用的通知)」³⁰⁾를 발표하고, 5월 30일에는 공장 전체 노동자들이 조직기율과 작업현장을 지킬 것을 요구하고, 시위 참여를 엄격히 금지한다. 6월 상순에는 공장 전체 130개 당 지부에게 중공중앙과 국무원의 중대 결정사항을 건결히 준수하다는 결의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신문, 방송, 대자보, 플래카드 등을 사용하여 결정사항을 홍보하는 한편, 각급 간부들은 사상정치공작 책임제를 실시하여 자신의 관할범위 내에서 노동자들이 “동란”에 대한 정확한 입장과 행동을 취하게 하는 교육을 담당하게 되었다. 아울러 ‘3가지 기억, 3가지 교육, 2가지 제고(三憶三教育兩提高)’ 활동을 전개하는데, 이것은 당사(黨史) 문화대혁명 동란사(動亂史) 공장역사(廠史)를 기억하고, 공장사랑 증산 절약을 교육하며, 중공중앙에 대한 노동자의 정치적 동일시와 공장에 대한 노동자의 책임감을 제고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상과 같이 다롄기차차량창은 「사상정치공작연구회」를 설립하여 개별 시기 제기된 중앙정부와 당 조직의 사상정치공작 요구에 적극 부응하는 활동을 벌였다.

V. 결론

개혁기 초기인 1980년대는 기존 마오쩌둥 시대 문화대혁명이 막 끝나고 시작된 시대이기 때문에 과거 유산의 제거와 극복에 국가적 역량이 집중되어있었지만, 기존과 달리 시장경제를 핵심내용으로 하는 사회주의를 건설해야 한다는 합의만 있었을 뿐 건설내용과 이행경로 등에 대해서는 중공공산당 지도부도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80년대 특히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시장경제의 출현과 이에 따른 기존 사회주의 이데올로기 약화가 도시사회의 가장 많은 인구를 차지하고 공산당의 정치적 기반이기도 한 노동자들에게 미칠 “악영향”에 대해서 공산당은 경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게다가 사회주의 시기 단위를 통해서 노동자에게 사회경제적 복지를 제공하고 동시에 정치적 조직과 동원을 투사할 수 있었던 것과는 달리, 개혁기는 시장경제의 확산으로 이러한 단위체제가 점점 약화 해체되는 상황에서, 국가는 단위에 전적으로 의존하지는 않는 노동자 교육의 문제를 구상한다. 또한 1980년대 국유기업 개혁이 시작되면서 산업구조 조정과 소유권 개혁과 같은 제도적 변화만이 아니라 노동자 의식의 변화도 동시에 진행되어야 포스트사회주의로의 체제전환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러한 ‘사상정치공작’에 관한 연구를 수행할 주체인 「사상정치공작연구회」를 설립한다.

본 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사상정치공작연구회」의 형성은 철저히 국가 주도하에 이뤄졌

30) http://news.ifeng.com/history/today/detail_2010_04/26/1089387_0.shtml (검색일: 2020년 2월11일).

으며, 주요 인물과 조직은 물론 경비까지 모두 국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다.

또한 다렌기차차량창의 사례분석에서도 보이는 것처럼, 「사상정치공작 연구회」는 지방소재 기업에도 설립되어서 1980년대 내내 제기되었던 공장장 책임제, 당정 공작, 텐안먼 사건과 같은 중요한 정치적 사회경제적 문제들에 대해서 기층 기업과 공장 차원의 사상정치공작을 주도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 문화대혁명의 “혼란”이 끝나고, 과거의 혼란을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과 체제전환의 기초적인 문제들이 부상하던 1980년대를 분석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1990년대 들어서 본격화된 국유기업 개혁에 의한 노동자 해고, 조업정지, 해고, 파산, 파업, 시위 등 1980년대 보다 훨씬 첨예한 정치적 사회경제적 문제들에 대한 「사상정치공작 연구회」의 활동에 대해서 다루지는 못했다. 1990년대 도시개혁을 통한 본격적인 국유기업 개혁,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통한 글로벌 자본주의 규범의 본격적인 수용, 2000년대 중반 글로벌 자본주의의 불안정성과 지속가능한 성장에 인식 확대 등 이후 시기별 「사상정치공작 연구회」의 활동들에 대해서 향후 심화된 연구를 통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 로드릭 맥파커 엮음, 김재관 정해용 옮김, 『중국 현대정치사』, 푸른길, 2012
- 박철현, 「사회주의 시기 중국 동북지역의 국가와 기업: 대련기차차량창의 전형단위제를 중심으로」, 『만주연구』 20집, 2015
- 이원준, 「중국공산당의 도시접관 정책과 하얼빈 통치방침의 변화」, 『도시연구』 13, 2015
- 한지현, 「새로운 중국의 새로운 노동자 만들기: 선양시 노동경쟁 캠페인과 공인촌」, 박철현 편 『도시로 읽는 현대중국 1』, 역사비평사, 2017
- 賈婧, 「國企改革的文獻綜述」, 『管理觀察』 31期, 2017
- 工廠簡史編委會編, 『大連機車車輛廠簡史 1899-1999』, 中國鐵道出版社, 1999
- 大連機車車輛工廠廠志編輯委員會 編, 『鐵道部大連機車車輛廠工廠志 1899-1987』, 1987
- 唐杰 劉魯魚 劉占軍 楊修友, 「“經濟轉軌與國企改革” 國際研討會綜述」, 『經濟學動態』 1期, 1998
- 鄧力群, 「思想政治工作的生命力在於創造」, 『思想政治工作研究』 5期, 1985
- 鄧力群, 「中央宣傳部部長鄧力群指出: 各級單位都要重視思想政治工作, 要清除來自各種渠道的精神污染」, 『思想政治工作研究』 5期, 1983
- 本刊編輯部, 「發刊詞」, 『思想政治工作研究』 1期 1983
- 楊兵, 「國企改革理論觀點綜述」, 『價格與市場』 7期, 1998
- 劉萍, 「國企改革分論壇綜述」, 『中國改革』 11期, 2003
- 張婧 吳麒麟, 「國企改革觀點綜述」, 『技術與市場』 8期, 2012
- 趙新源, 「在探索中運轉 在運轉中完善: 中國職工思想政治工作研究會第五屆年會側記」, 『思想政治工作研究』 5期, 1989
- 趙秋靜, 『東北解放區思想政治教育研究』,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13
- 曾衛平, 「關於國企改革研究的綜述」, 『商』 21期, 2012

曾志偉, 「國有企業思想政治工作創新研究」(中共中央黨校博士學位論文), 2010

陳進玉, 『企業職工思想政治教育概要』, 企業管理出版社, 1984

馮剛 曾永平, 「“思想政治工作”與“思想政治教育”概念辯析」, 『思想政治教育研究』1期, 2018

邢淼, 「進一步深化國企改革理論觀點綜述」, 『中國工商管理研究』3期, 2005

<http://www.china.com.cn/ch-America/Wenxian/zhong.htm> (검색일: 2020년 2월10일)

<http://siyanhui.wenming.cn/xb2015/hydw/1/> (검색일: 2020년 2월12일)

<https://www.pmume.com/o/n5arb.shtml> (검색일: 2020년 2월12일)

<http://siyanhui.wenming.cn/xb2015/hydw/2/> (검색일: 2020년 2월11일)

http://news.ifeng.com/history/today/detail_2010_04/26/1089387_0.shtml (검색일: 2020년 2월11일)

http://www.ce.cn/xwzx/gnsz/szyw/200706/07/t20070607_11633643.shtml (검색일: 2020년 2월11일)